

지역문화유산의 관리와 활용을 위한 라키비움 건립 연구 : 진해근대역사문화 공간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Larchiveum for the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Local Cultural Heritage : Focusing on the Jinhae Modern History and Culture Space

권문석¹, 김연희^{2*}

Mun-Seok Kwon¹, Yeun-Hee Kim^{2*}

요약

최근 지역문화유산의 관리와 활용을 위해 체계적인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의 당위성이 제기되며, 지역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특히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기능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유형의 복합수집기관으로 주목받는 라키비움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대표적인 지역문화유산으로 평가받는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에 라키비움을 건립하여 지역문화유산의 관리와 활용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먼저, 국내의 라키비움 중에서 이용자가 요구하는 정보들을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며, 지역과의 유기적인 연결로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ty)을 확립하는 대표사례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 LX 라키비움, 세계유교문화박물관 라키비움을 대표사례들로 선정하여 각각의 특성과 기능, 그리고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에서의 라키비움 건립을 제안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

핵심어 : 지역문화유산, 진해,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 기록, 라키비움

Abstract

Recently, the justific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atic record management system has been raised for the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local cultural heritage, and interest in local archives has increased. In particular, research on Larchiveum, which is attracting attention as a new type of complex collection institution by integrating the functions of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is being actively conduct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Larchiveum in the Jinhae Modern History and Culture Space, which is registered as a state-registered cultural heritage and is evaluated as a representative local cultural heritage, and to suggest ways to manage and utilize local cultural heritage. First

1 Department of Art & Museum,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Graduate Student]

e-mail: weather95@naver.com

2 Department of Art & Museum,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Professor]

e-mail: tofree1@kookmin.ac.kr (Corresponding author)

Received(March 1, 2023), Review Result(1st: March 27, 2023, 2nd: April 25, 2023), Accepted(June 12, 2023), Published(June 30, 2023)



© 2023 The Authors. Published by NCIS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Licens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of all, the National Asian Cultural Center Library Park, LX Larchiveum, and Confucian Culture Museum Larchiveum were selected as representative examples to provide information required by users through a systematic system and establish cultural identity through organic connection with the region. Based on the analysis, it proposed the construction of Larchiveum in the Jinhae Modern History and Culture Space, and suggested the direction of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region.

Keyword : Local cultural heritage, Jinhae, Jinhae Modern History and Culture Space, Record, Larchiveum

1. 서론

지역문화유산은 지역이 지닌 역사적 특성을 대표하는 상징물이며,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연관되어 있다. 또한,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 즉 고유한 정체성을 띠며 지역을 대변하는 가장 보편적인 대상으로 중요한 자산이다 [1]. 최근 들어 이러한 지역문화유산의 보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지역문화유산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역문화유산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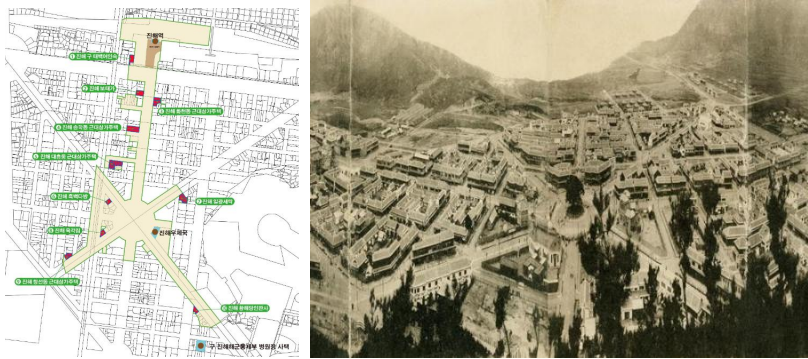
이에 본 연구는 국가등록문화재에 등록된 진해근대문화역사공간의 보존과 문화적 활용을 위한 라키비움 건립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지역문화유산과 진해의 진해근대문화역사공간에 관해 살펴보고, 지역문화유산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을 위하여 기록 관리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통합된 환경을 통하여 제공하며, 지역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라키비움에 관한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국내의 라키비움 중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 LX 라키비움, 세계유교문화박물관 라키비움을 대표사례로 선정하여 각각의 기능과 특성, 사회·교육적 역할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에 따른 시사점을 바탕으로 국가등록문화재에 등록된 진해의 진해근대문화역사공간의 보존과 문화적 활용을 위한 라키비움 건립에 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지역문화유산과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

지역문화유산이란 지역의 역사적 특성을 내포하며, 지리적 특성과 결부되어 지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 즉 고유한 정체성을 띠며, 지역을 대표하는 보편적인 대상으로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다. 진해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하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건설된 군항도시이며, 당대에 건설된 시설들이 광복 이후 지역민들에게 불하되어 현재까지 지역민에 의해 이용된다.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은 국권 피탈 이후 일본에 의하여 군항이 건설되어 지역민이 강제적인 이주를 당했던 한국의 근대사를 대변하며, 19세기 중엽의 서구적인 건축물 및

기반시설들이 보존된 유일한 지역이다. 따라서 지역민의 공간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체계적인 기록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명명되어 2021년에 국가등록문화재 제820호로 지정됐다 [2]. 하단의 [그림 1]은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의 지역적 범위를 나타낸 지도이다 [3][4].



[그림 1]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

[Fig. 1] Jinhae Modern History and Culture Space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은 일본에 의하여 군항이 건설되며 지역민이 강제적인 이주를 당했던 고초적인 근대사를 대변하며, 근대적인 유럽식 건물과 시설이 현재까지 이용되는 유일한 지역이다. 따라서 진해의 역사적 특성과 지리적 특성이 결부된 대표적인 지역문화유산인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의 관리와 활용을 위해 지역에 대한 지역민의 기억을 바탕으로 기록을 수집하여 통합된 환경에서 관리하는 체계적인 기록관리 시스템이 요구된다.

2.2 라키비움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등 현시대의 대표적인 문화유산기관들은 복합문화기반시설로서 다양한 기능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지역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ty)을 확립한다. 이러한 변화는 1977년龐피두 센터(Centre Pompidou)에 의하여 시작되어 전세계로 확장하였으며, 한국은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부터 시작됐다. 이처럼 문화유산기관이 복합문화기반시설로 변화되며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된 환경의 당위성이 제기됐고, 이러한 요구에 의하여 라키비움(Larchiveum)이 등장했다. 라키비움은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s), 박물관(Museum)의 다양한 기능들을 통합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통합수집기관으로, 2008년 메건 윈젯(Megan Winget) 교수에 의하여 처음 제창됐다. 라키비움에서 제공하는 핵심적인 기능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양한 정보의 수집, 관리, 제공 등을 수행하는 도서관의

기능이 있다. 둘째, 다양한 문헌의 수집, 연구, 관리 등을 수행하는 기록관의 기능이 있다. 셋째, 소장품의 연구, 관리, 전시 등을 수행하는 박물관의 기능이 있다. 또한 지역과 연계해 지역 문화 부흥, 지역 환경 정비 등의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민의 평생교육, 이용자의 체험학습 등의 교육적 역할을 담당한다 [5]. 이처럼 라키비움이라는 융복합적 기관에서는 소장한 문헌과 자료의 범주가 확대되고, 관리 및 활용 방법 또한 다양해지면서 커뮤니티 활동과 평생교육의 기능 등이 융합되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6]. 하단의 [표 1]은 라키비움의 기능과 역할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라키비움의 기능 및 역할

[Table 1] Function and Role of Larchiveum

기능			역할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사회적 역할	교육적 역할
수집 관리 제공	수집 연구 관리	연구 관리 전시	지역 문화 부흥 지역 환경 정비	지역민의 평생교육 이용자의 체험학습
서고 열람실 자료실	수장고 연구실 복원실	수장고 전시실 학예실	지역문화기반시설	사회교육기관

2.3 지역문화유산과 라키비움

지역문화유산은 지역의 역사적 특성과 지리적 특성이 결부되어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며, 특성에 따라서 지역과 관련된 기록과 유·무형의 유물 및 유적으로 구분된다. 지역과 관련된 기록은 지역의 도서관과 기록관을 통해 체계적인 기록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관리되며, 유·무형의 유물과 유적은 지역의 박물관을 통해 전문적인 인력과 환경을 바탕으로 보호되어 계승된다. 라키비움은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며, 이용자가 요구하는 정보들을 통합된 환경을 통해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한다. 즉, 라키비움은 지역문화유산의 특성에 따라서 적합한 기관과 환경을 구성해 체계적·전문적 관리가 가능하고, 다양한 기관의 기능을 통합하여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한다. 이를 통해 지역문화유산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하며, 지역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복합문화거점시설로서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문화산업 경쟁력 육성에 공헌한다.

3. 사례연구

라키비움은 이용자의 요구하는 다양한 정보를 통합된 환경에서 제공하며, 체계적인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문화산업 경쟁력 육성에 공헌한다. 이에 라키비움의 기능과 역할을 바탕으로 국내의 대표적인 라키비움 사례들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사례를 선정한 기준은 라키비움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며,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의 특성과 유사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 LX 라키비움, 세계유교문화박물관 라키비움을 선정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의 경우에는 지역 문화 성장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며, 지역민과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사회적 특성이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과 유사하다. LX 라키비움의 경우에는 체계적인 기록관리 시스템과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하는 환경적 특성이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과 유사하다. 세계유교문화박물관 라키비움의 경우에는 지역의 생태학적 특성들을 바탕으로 고유한 특성을 보이는 독자적인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라키비움을 운영하는 지역적 특성이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과 유사하다. 해당 사례들을 연구하며 라키비움 운영의 방식과 공간의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그리고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에 적용하여 라키비움 건립의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3.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는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에 위치하며, 2015년 11월 개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기관으로서 선도적인 도시개발 방안의 창출을 위해 진행된 국책 사업으로 건립되었으며, 아시아 문화에 대해 교육, 연구 등을 진행하며 아시아 각국과 동반성장하기 위한 사업들을 전개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민주평화교류원, 어린이문화원,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의 5개원과 예술극장, 아시아문화광장의 개방형 공간으로 구성된다. 5개원에서는 독자적인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아시아 문화와 관련된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을 위해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개방형 공간에서는 지역과 연계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며 지역민과 이용자의 교육 및 체험 등을 제공한다 [7]. 하단의 [그림 2]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의 전체적인 단면도와 아시아문화박물관 내부의 모습이다 [8].



[그림 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

[Fig. 2] The Asia Cultural Center Library Park

3.2 LX 라키비움

LX 라키비움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연수단지길 182에 위치하며, 2020년 12월에 개관했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부속기관으로서 대한민국 공공기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라키비움 형식으로 건립되었으며, 지적측량결과도의 보호와 공간정보전자기록의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공간정보 통합포털의 구축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서고를 구축하고, 전문적인 기록관을 설립하여 독자적인 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또한 수장고 형태의 사료실에 행정박물관들을 전시하여 상설전시, 기획전시, 체험학습 등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며, 추후 독자적인 박물관을 건립하여 박물관의 기능들을 수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적이익들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건립한 라키비움의 특성상 지역민과 직접적인 연계를 통해 사회적 발전을 수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자체와의 협업 및 교류를 통해 지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하고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한다 [9]. 하단의 [그림 3]는 LX 라키비움의 전체적인 조감도와 전시관 내부의 모습이다 [10].



[그림 3] LX 라키비움

[Fig. 3] LX Larchiveum

3.3 세계유교문화박물관 라키비움

세계유교문화박물관은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1997에 위치하며, 2006년 6월에 개관했다. 한국국학진흥원의 부속기관으로서 한국의 유교적 문화를 홍보하고 국학과 관련된 문헌의 기탁을 활성화하고자 건립된 세계유교문화박물관은 수장고가 없는 박물관으로서, 라키비움의 형식을 염두하여 건립됐다.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디지털 유물들을 아카이빙하고, 이용자들에게 민주적인 공유와 참여를 실현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브랜드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현재 대한민국 최초로 박물관형 아카이브를 일부 구축하여 세계유교문화박물관에서 소장

하는 유물들과 문헌들을 아카이빙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며, 추후 문헌의 기탁이 활성화된다면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디지털 아카이브의 저변을 확대하고, 체험학습 및 문화강의 등을 통해 지역민과 이용자의 교육을 제공한다 [11]. 하단의 [그림 4]는 세계유교문화박물관 라키비움의 전체적인 조감도와 라키비움 내부의 모습이다 [12].



[그림 4] 세계유교문화박물관 라키비움
[Fig. 4] Confucian Culture Museum Larchiveum

3.4 사례분석

이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 LX 라키비움, 세계유교문화박물관 라키비움을 라키비움의 기능과 역할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는 라키비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민과 협업하여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LX 라키비움은 대부분의 라키비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며 공공기관 라키비움으로서 지역민과 직접적인 협업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지만,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업 및 교류 등을 진행하며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하고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한다. 세계유교문화박물관 라키비움에서는 전반적인 라키비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며, 추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미비한 기능과 역할을 충족할 예정이다. 앞서 분석한 결과를 하단의 [표 2]에 정리했다.

[표 2] 라키비움 대표사례 분석결과

[Table 2] Analysis of Representative Cases of Larchiveum

명칭	기능 및 역할				
	도서관의 기능	기록관의 기능	박물관의 기능	사회적 역할	교육적 역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	●	●	●	●	●
LX 라키비움	●	●	●	△	●
세계유교문화박물관 라키비움	△	●	●	△	●

● : 있음 / △ : 미미 혹은 계획 / × : 없음

국내의 대표적인 라키비움 사례들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키비움, LX 라키비움, 세계유교문화 박물관 라키비움을 분석하며 다음의 공통점들을 도출했다. 첫째, 다양한 개방형 공간을 조성하여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한다. 둘째, 체계적인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사업의 수립과 전개를 추구한다. 셋째, 지역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하고, 문화산업 경쟁력을 육성한다. 정리하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키비움, LX 라키비움, 세계유교문화박물관 라키비움에서는 이용자가 요구하는 정보들을 통합된 환경을 구성하여 제공하며, 체계적인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산업 경쟁력을 육성한다.

4. 건립방안

4.1 대상지역 현황분석

창원시에서는 지역민과 협업하여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먼저 ‘충무지구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발족하여 지역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워크숍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환경 정비, 지역 행사 개최 등의 활동들을 진행하며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의 홍보와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진해역 부지에 ‘진해문화플랫폼1926’을 건립하여 ‘진해관광학교’, ‘진해육아나눔학교’, ‘진해2080청년학교’ 등을 운영하며 이용자에게 문화성과 경제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에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경제 부흥에 기여하는 복합문화거점시설을 건립하여 지역민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 ‘근대건축문화진흥구역’을 설정하고, ‘청년창업플랫폼’을 조성하여 근대문화복원 및 상권부흥 등의 가치들을 추구할 예정이다 [13]. 하단의 [그림 5]는 진해문화플랫폼1926의 전체적인 단면도와 사업들을 보여준다 [14].



[그림 5] 진해문화플랫폼1926

[Fig. 5] Jinhae Culture Platform 1926

현재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사업의 성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합문화거점시설 건립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한다. 둘째, 당대에 건립된 시설들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역의 발전을 추구한다. 하지만 체계적인 기록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인하여 관련된 기록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이 제한되고, 이에 따라 효율적인 지역문화유산의 관리와 활용이 제약받는 실정이다. 지자체와 지역민이 협업하여 지역에 대한 지역민의 기억을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문화산업 경쟁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접근성을 향상하여 효율적인 지역문화유산 관리와 활용을 추구하는 통합된 환경의 조성이 요구된다.

4.2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에서의 라키비움 건립방안

앞서 국내의 대표적인 라키비움 사례들을 분석하며 도출했던 시사점과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의 다양한 특성을 결부하여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에 라키비움 건립의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라키비움 건립의 방안은 이론적 배경에서 연구했던 라키비움의 기능과 역할을 바탕으로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의 특성들을 분석하고 해당되는 요소들을 충족하여 제시하고,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에서 전개되는 사업들을 바탕으로 적합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4.2.1 도서관의 기능

현재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에는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부재한 상황이며, 진해와 관련된 기록들은 진해도서관, 창원시립진해박물관, 진해구청, 창원시청 등의 유관기관들에 분산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창원시에서는 현재의 진해역 부지에 진해문화플랫폼1926을 건립하여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경제 부흥에 기여하는 복합문화거점시설을 건립할 것이라 언급했고, 이에 따라 다양한 교육사업이 전개될 예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체계적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교육사업들을 보조하고, 이용자에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진해문화플랫폼1926 내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지역민의 전문적인 교육과 문화적인 소양을 집정하는 통합적 환경을 마련하여 이용자가 요구하는 정보들을 제공하며,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산업 경쟁력을 육성하는 복합문화거점시설에 부합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4.2.2 기록관의 기능

현재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에는 기록관도 부재한 상황이며, 충무지구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기록관의 기능들을 수행한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본 연구는 충무지구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충무지구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전개하는 사업들을 활용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충무지구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는 지역민의 문화복지 증진, 지역문화유산 보호,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의 홍보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진해근대역사문화

공간의 생태학적 특성들에 주목하여 ‘오픈하우스 프로그램 : 기억스테이’, ‘창원 스토리북 발간사업 : 공간, 기억을 잇다 -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의 재조명’ 등의 지역아카이브 제작관리사업들을 주력 사업으로 전개한다. 하지만 충무지구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위치한 ‘보태가’는 기록관의 기능들을 담당하기 협소한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적인 기록 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기록 열람 환경을 조성하는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만의 독자적인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이 요구된다. 이러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이용자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환기하여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의 생태학적 특성들에 대한 개방성과 공공성을 확립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역과 연계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며 선진적인 지역 성장 모델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4.2.3 박물관의 기능

현재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에는 창원시립진해박물관이 건립되어 박물관의 기능을 수행하나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의 생태학적 특성들을 내포하지 않고, 소장품 위주의 일방적인 전시만 진행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본 연구는 박물관의 기능을 충족하기 위해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에 에코뮤지엄을 건립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에코뮤지엄은 1973년 조르주 앙리 리비에르(Georges Henri Rivière)에 의하여 제창된 개념으로, 전통적인 박물관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이러한 에코뮤지엄은 지역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지역문화유산들을 보호하고, 지역 문화 성장, 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다 [15]. 이러한 특성은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에서 지역민, 지자체 등이 협업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과 부합한다. 따라서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에 에코뮤지엄을 건립하여 지역 경제 부흥 및 지속적인 지역 사회 발전 등을 확립하고,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의 생태학적 특성들을 내포하는 문화적 상표를 구축하여 생태와 생계가 상생하는 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다.

4.2.4 사회적 역할

현재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 위치하는 충무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는 충무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는 지역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지역환경 정비사업, 워크숍, 지역 관련 기록 수집 및 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며 지역민이 주도하는 지역 사회 발전 사업들을 전개한다. 특히 충무지구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전개하는 사업들 중에서 ‘진해 충무지구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진해충무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등의 민간위탁사업들은 다른 지자체들에서 시행하는 민간보조사업과는 달리 사업의 전반을 지역민에 위탁한다. 이를 통해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정적 능률의 향상을 도모한다. 충무지구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전개하는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라키비움의 사회적 역할에 부합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라키비움의 사회적 역할을 충족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 지역민이 주도하는

바람직한 사회적 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다.

4.2.5 교육적 역할

현재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에서는 충무지구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통해 ‘2022 충무지구 청소년 도시건축학교’, ‘2022 충무지구 도시재생대학’ 등의 교육사업들을 전개하며, 추후 진해문화플랫폼 1926이 건립되면 진해관광학교, 진해육아나눔학교, 진해2080청년학교, 문화콘텐츠 스타트업 리그 등의 평생교육사업 및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러한 교육사업들은 지역민의 평생교육, 이용자의 체험학습 등을 담당하는 라키비움의 교육적 역할과 유사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에서 전개되는 교육사업들을 활용하여 라키비움의 교육적 역할을 충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이에 더해 앞서 언급했던 도서관을 진해문화플랫폼1926에 건립하여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민을 대상으로 인문학적 소양교육 등을 진행하면 복합문화거점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배가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국내의 대표적인 라키비움 사례들을 라키비움의 기능과 역할을 바탕으로 분석했고, 분석하여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에 적용하여 라키비움 건립의 방안을 제시했다. 사례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지역문화유산의 관리와 활용을 위해 체계적인 기록관리 시스템의 당위성을 절감했고, 라키비움의 건립을 통해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체계적인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향상한다. 또한 지역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산업 경쟁력을 육성한다. 현재 진해역사문화공간에서는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복합문화거점시설을 건립하고 당대에 건립된 시설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하지만 체계적인 기록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인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이 제한되고 효율적인 지역문화유산의 관리와 활용이 제약받는 실정이다. 따라서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에 라키비움을 건립하여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내포한 체계적인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효율적인 지역문화유산의 관리와 활용을 도모한다. 또한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산업 경쟁력을 육성하여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의 지속적인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References

- [1] S. Y. Kang, "A Study on the Animation Teaching Program for Local Cultural Heritage Educa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 Focusing on the Suwon area",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Art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21.
- [2] H. G. Jung, J. H. Choi, "An Evaluation of the Development Process in Jinhae and a Proposal for the Planning Direction", *Journal of The Urban Design Institute of Korea*, vol. 9, no. 4, December 2008, pp. 232-233.
- [3]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Jinhae Modern History and Culture Space", heritage.go.kr, 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jsessionid=Waj96IYtFlomw92npynMaCVTOqYIDYpae3WCQ6yOh6mlMpa bqalaRCLpvKDsSEA.cpawas2_servlet_engine1?VdkVgwKey=79,08200000,38&pageNo=1_1_1_0, (accessed January 2, 2023).
- [4] B. G. Hwang, "Jungwon Square in Jinhae-gu, Changwon, was selected as a candidate for cultural property registration survey", 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1150000052?input=1195m>, (accessed January 19, 2023).
- [5] S. W. Yoon, "A Study on the Spatial Planning of a Local Culture Museum using the Concept of Larchiveum - Based on Sewing Industrial Area at Sinwol-dong in Seoul",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Architecture & Urban Design, Hongik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22.
- [6] S. Y. Yoon, "A study on cultural use of national industrial complex : focused on Larchiveum", Docto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16.
- [7] Y. J. Jang,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Operation and Activation Methods of Public Libraries with Multi-Functions - Focused on the Asia Culture Center Library Park",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Culture, Republic of Korea, 2017.
- [8] Asia Culture Center, "Asia Culture Center Library Park", acc.go.kr/main/index.do, <https://www.acc.go.kr/main/contents.do?PID=050801>, (accessed January 5, 2023).
- [9] G. M. Kang, "Establishment of Archives-Centered Larchiveum - The Case of LX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rchives & Records Management*, vol. 19, no. 2, May 2019, pp. 251-256, doi: 10.14404/JKSARM.2019.19.2.250.
- [10] LX Education Institue, "LX Larchiveum", lxcti.or.kr/fir/main.do, https://www.lxcti.or.kr/fir/biz/photo/recod/planDisplay_list/selectPhoto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6, (accessed January 7, 2023).
- [11] J. G. Lee, "A Study on building the Digital Archive of the World Confucian Culture Museum", *Journal of The Taegye of Research & Review*, vol. 27, December 2020, pp. 251-256, doi: 10.14404/JKSARM.2019.19.2.250.
- [12] World Confucian Culture Museum, "World Confucian Culture Museum Larchiveum", andong.go.kr/worldmuseum/main.do, <https://www.andong.go.kr/worldmuseum/contents.do?mId=0102010000>, (accessed January 9, 2023).
- [13] S. H. Lee, "A total of 40 billion won will be invested in Jinhae Chung-mu and Masan Guam district over

- five years”, nocutnews.co.kr, <https://www.nocutnews.co.kr/news/5025666>, (accessed January 18, 2023).
- [14] Changwon Urban Regeneration Center, “Chungmu Urban Regeneration Center”, cwurc.or.kr, <https://blog.naver.com/prologue/PrologueList.naver?blogId=jinhae1926>, (accessed November 15, 2022).
- [15] H. J. Jang, J. J. Wan, “Case Study Research on Ecomuseum of Local Area - based on foreign case study”, *Journal of Digital Design*, vol. 9, no. 3, July 2009, pp. 282-291.